

## 콩고민주공화국, 대선 및 총선 실시

### 1. 대선 및 총선 결과

#### □ 대선 및 총선 실시

-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종식 이후<sup>1)</sup> 두 번째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가 2011년 11월 28일에 6만여 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되었음.
- 2003년에 내전이 종식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된 민주 선거에서는 현 조셉 카빌라(Joseph Kabila Kabange) 대통령이 58.1%의 득표율로 당선 되었으며, 국민재건당(People's Party for Reconstruction and Democracy)이 22.2%의 득표율로 다수당이 되었음.
-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8.8%로 2006년 선거의 투표율(70.5%)보다 대폭 하락하였으며,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자도 11명으로 2006년(33명)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음.

#### □ 대선결과 발표

-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(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)는 두 번의 연기 끝에 2011년 12월 9일에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의 재선을 공식 발표하였음.

1) 2003년에 남아공 Sun City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와 반군 대표가 남아공, 잠비아, 나미비아, 짐바브웨 등 4개국 대통령 참관 하에 콩고민주공화국 평화협상 최종법안에 서명하였음.

< 표 1 >

## 2011년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결과

후 보	정 당	득표수	득표율
조셉 카빌라 (Joseph Kabila)	무소속 (independent)	888만	48.95%
에티엔 치세케디 (Etienne Tshisekedi)	민주사회진보연합 (UDPS)	586만	32.33%
기타 9명	기타 정당	340만	18.72%
합 계		1,814만	100.0%

자료: Independent National Electoral Commission.

- 카빌라 대통령은 49%의 득표율로 32%를 획득한 민주사회진보연합(UDPS)의 에티엔 치세케디(Etienne Tshisekedi)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였음.
- 2011년 12월 17일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, 의회 선거는 개표 작업이 진행 중으로 2012년 1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.

## 2. 대선 경과 및 전망

### □ 폭력사태와 부정선거 시비 여전

- 선거 이전부터 선거 및 유세 활동과 관련된 폭력 사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, 선거 과정에서도 폭력사태가 지속되어 정국 혼란이 심화되었음.
- 동남부 지역 제2의 도시 루뎀바시에서는 무장괴한들이 투표소를 공격하여 경찰관 2명을 포함하여 최소 9명이 사망하였으며, 에티엔 치세케디 후보의 지지 성향이 강한 카사이주에서는 15개의 투표소가 불타기도 하였음.
-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선거로 적어도 18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.

- 선거를 위해 파견된 유럽의 감시단은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밝혔으며,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 발표일을 당초 6일에서 8일로, 다시 9일로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음.
- 사전에 조셉 카빌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기된 대규모 투표용지가 발견되었고,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금지당하기도 하였음.
- 야당의 지지도가 높은 킨샤샤 지역에서는 2천여 개 투표소의 투표함이 분실되었으며,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지지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99~100%의 투표율을 보였음.

## □ 선거결과에 반발한 시위 발생

- 수도 킨샤샤에서는 선거 결과에 반발하여 거리에서 자동차를 불태우고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의 폭력 시위가 발생하였으며,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.
- 런던 등 콩고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 도시에서도 카빌라 대통령 재선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음.

## □ 정국 혼란 지속 전망

- 상원의장을 지낸 레온 켈고(76) 등 3명의 후보자는 11월 29일에 공동성명을 통해 상당수 지역에서 가짜 투표소와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며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요구하였음.
- 10개 야당은 카빌라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였고, 에티엔 치세케디 후보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는 등 정국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조사역 이현정(☎02-3779-5724)

E-mail : [lhj016@koreaexim.go.kr](mailto:lhj016@koreaexim.go.kr)